

### 특허청, 몽골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심사 대행 예정

하동만 특허청장은 지난달 10일, 대전에서 남질 친밭(Namjil CHINBAT) 몽골 특허청장과 한·몽골 특허청장 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상의 국제조사 기관지정 문제, 특허행정 정보화 등이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몽골이 한국 특허청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 이로써 몽골 국민의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우리 특허청이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 특허청이 '97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국제조사 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국가는 필리핀('01), 베트남('02), 인도('03), 인도네시아('03)를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한국특허청이 외국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 대행기관으로 잇달아 지정되고 있는 것은 특허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허심사 수준의 질적 향상 노력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밖에도 양국은 전통지식에 대한 보호문제, 특허정보화, 상표보호에 대한 협력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로써 '90년 한·몽 수교 이후 그동안 미미했던 지식재산분야의 협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발판으로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우리 지식재산의 보호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월플, LG전자 특허침해로 제소

미국 가전업체인 월플은 13일(현지시간) LG전자와 미국법인 LG전자 USA를 상대로 세탁기 특허 침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월플은 LG전자가 '88년과 2001년 확보한 자사의 세탁기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시건 서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월플은 문제의 특허가 절전 및 절수 기능과 함께 세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월플은 앞서 지난해 8월에도 '93년에 확보한 2개의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월플은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LG 세탁기의 미국 시판 금지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 일본, 사원특허 과다보상 판결 둘러싼 논란 거세질 전망

직원이 재직 중 직무상 개발한 발명특허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과 관련, 어느 정도의 대가지급이 적정 규모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타시로 가쿠다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지난달 3일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발명가에게 사상 최고액인 2백억엔(2천2백억원)을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기업 연구원의 발명 대가는 수백만엔 또는 1천만엔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고 있는 연구자에게 추가로 지나친 보상을 해주는 것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라며 '이번 결정은 매우 문제있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같은 대가지급 관행이 정착될 경우 연구개발 저점으로서의 일본의 위상이 크게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사원들의 연구개발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된 판결의 원고측 변호를 맡았던 마쓰나가 히데토시 변호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업에 놀려줬던 개인의 입장이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창의적 연구활동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특허법 제35조는 기업이 발명의 주역인 직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특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액수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다.

일본 법원은 지난 1월 30일 청색 LED를 세계 최초로 발명한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가 발명 당시 근무했던 니치야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특허권 확인소송에서 그간의 이익분배금 및 보상금으로 요구한 2백억엔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만화로 보는 발명 특허 이야기 발명가의 10대 자세 ⑦ 김수/오혜정 글/황연중 그림/김민재

때로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자

자, 발명가의 10대 자세 중 행운의 숫자 7이 들어간 7번째 자세이다.

7이 들어간 7번째 자세이다.

사실 이번 내용은 두렵기도 한 부분이다. 특히 똥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 점점 더 의기양양해 질테니까 말아.

아하.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오옷. 똥이 내용이 궁금한 걸요?

7번째 자세는 '때로는 엉뚱한 생각도 해보자' 이다!!

흠...

뭐야, 저 눈빛은-?

인풋보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이

뜻밖의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다.

즉 엉터리 같은 아이디어는 하는 것처럼 주는 사람에게 천물을 끼얹어 잠이 확 달아나게

하는 것처럼 제정신이 들게 할수 있다.

스승님 강박에 눈이 안아오!

머리띠 끼리 엉구 왔다!

저런 왜래?

잠이 확 깨네요!

동전 밑이 어둡듯이 너무 쉬워서 혹은

너무 가까이 답이 있어 이를 쉽게 생각해 버릴때

엉뚱한 생각은 이를 지적해 주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해주지

답이 과연 될까?

또한 엉뚱한 사람의 생각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고정관념이라든가 어떤 틀에 매어 있지 않아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고 새로운 해석을 하기도 한단다.

여하튼 몇 년전만 해도 엉터리라고 했던 상당한 수의 아이디어가 지금 와서는 현실성이 있으니 말이다.

그러고 보면 엉뚱한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는거란다.

그런 의미에서 똥이에게 미안하더구나.

어? 박사님이 왜 미안하세요. 전 늘 현실적이면서 미래 지향적인 질문만

했을 뿐인데요. 전 엉뚱한 질문한 적 없어요.

??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